

미국 실업수당 청구: 신규는 줄었지만 4 주평균·계속청구 반등해 신호 엿갈려

2026.08.2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8월 15일 종료 주)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6천 건 줄었다. 다만 이 수치만 보고 노동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뢰도가 더 높은 4주 이동평균이 19만 9,750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4,250 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발표에서 처음 나타난 상승 전환으로, 지난주까지 이어지던 횡보 흐름에서 한 단계 벗어난 움직임이다. 헤드라인 감소와 이동평균 상승이 같은 발표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표면 숫자를 뜯어보면 이번 감소폭에는 착시가 섞여 있다. 직전 주 수치가 20만 9천 건에서 21만 2천 건으로 3천 건 상향 수정되면서 비교 기준선이 올라갔고, 그 결과 이번 주 감소폭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원계열에서도 청구 건수가 1만 7,123 건(-9.1%) 줄어 계절적으로 예상됐던 감소폭(-6.4%)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감소가 순전히 통계적 착시만은 아니다. 한편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수를 보여주는 계속청구 건수는 1만 8천 건 늘어 179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집계 기준이 다른 별도 계열(전 프로그램 계속주수)에서는 오히려 2만 1,302 건 감소해 방향이 엇갈리는 만큼, 채용 시장 쪽 신호는 이번 회차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총량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주와 비교하면 신규 청구는 2만 7천 건, 4주 평균은 2만 1,500 건 낮고, 보험실업률도 1.2%로 전년(1.3%)보다 낮다. 즉 기업들이 인력을 대규모로 내보내는 국면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4주평균 반등과 계속청구 증가는 그 저위 흐름 안에서 상방 압력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지표는 헤드라인 감소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쪽을, 이동평균 반등과 계속청구 증가는 완만한 냉각 쪽을 각각 지지하는 양면적 결과로, 어느 한쪽이 뚜렷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이른다.

앞으로는 4주평균이 20만 4천 건대 위에서 2~3주 더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번 주 수치가 다음 발표에서 또 상향 수정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계속청구 두 계열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는지도 채용 시장의 실제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확인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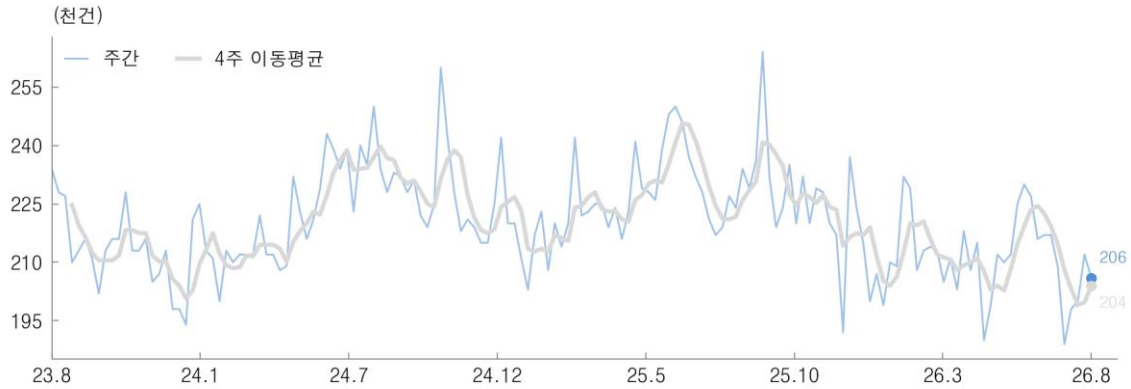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20 (이번)	8월 15일로 끝난 주간 기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줄었지만, 더 신뢰할 만한 지표인 4주 이동평균은 19만 9,750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오히려 4,250 건 올라섰다. 총량 자체는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저위 구간에 머물러 있으나 방향은 소폭 위쪽으로 꺾여, 이번 주 발표는 '저위 구간 안에서의 완만한 상
2026-08-13	8월 8일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전주 수정치(20만 건) 대비 9천 건 늘었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은 19만 9천 건으로 전주와 완전히 같아 노동시장 냉각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2026-08-06	8월 1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전주 수정치보다 1천 건 늘었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은 19만 8,750 건으로 20만 건 아래까지 내려오며 4,500 건 줄었다. 해고발 노동시장은 여전히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위에 있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이 잔잔함이 위험자산에는 오히려
2026-07-30	7월 25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늘었지만, 흐름을 대표하는 4주 이동평균은 20만 2,750 건으로 오히려 5천 건 줄었다. 이번 주 반등만 보고 노동시장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4주 평균의 하락도 상당 부분은 계산에서 높은 과거 수치가 빠져나간 데 따른 기술적인 효과다. 결론을 요

신규·계속 실업수당 청구 핵심 지표				
지표	이번	이전	변화	맥락
신규 청구(계절조정, 8/15 종료)	206,000 건	212,000 건(8/8, 상향수정)	-6,000 건	직전주 3천 건 위로 수정돼 감소폭 확대 표시
4주 이동평균(신규, 계절조정)	204,000 건	199,750 건	+4,250 건	최근 흐름에서 첫 상승 전환
신규 청구(계절조정 전, 원계열)	172,080 건	189,203 건	-17,123 건(-9.1%)	계절 예상 감소폭(-6.4%)보다 큰 실질 감소
계속청구(계절조정, 8/8 종료)	1,799,000 건	1,781,000 건	+18,000 건	재취업 지연 가능성 시사
전 프로그램 계속청구(비조정, 8/1 종료)	1,839,126 건	1,860,428 건	-21,302 건	계절조정 계속청구와 방향 엇갈림
보험실업률(계절조정)	1.2%	1.2%	변화 없음	전년 1.3%보다 낮은 수준 유지
신규 청구, 전년 동주 대비	206,000 건	233,000 건(전년)	-27,000 건	총량은 여전히 낮은 구간
4주 이동평균, 전년 동주 대비	204,000 건	225,500 건(전년)	-21,500 건	저위 구간 내에서 상방 압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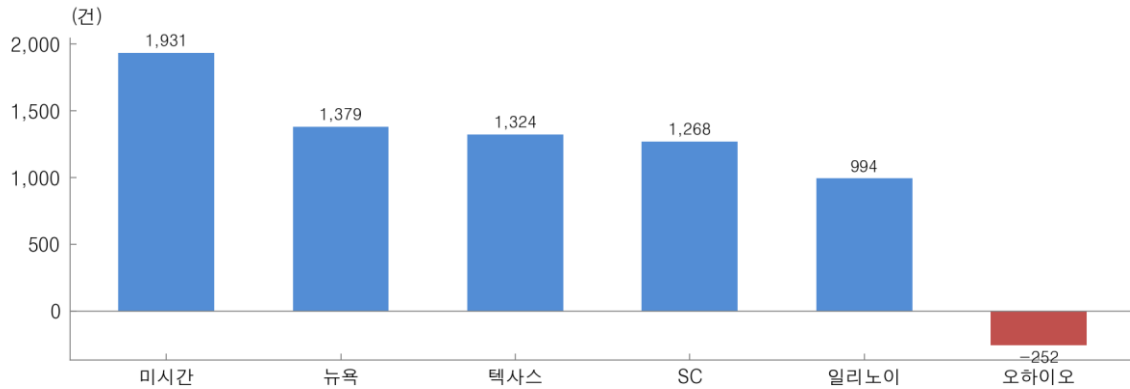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4주 이동평균(건)	204000
전주대비(건)	-6000
계속 실업청구(건)	1799000
신규 실업청구(건)	2060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주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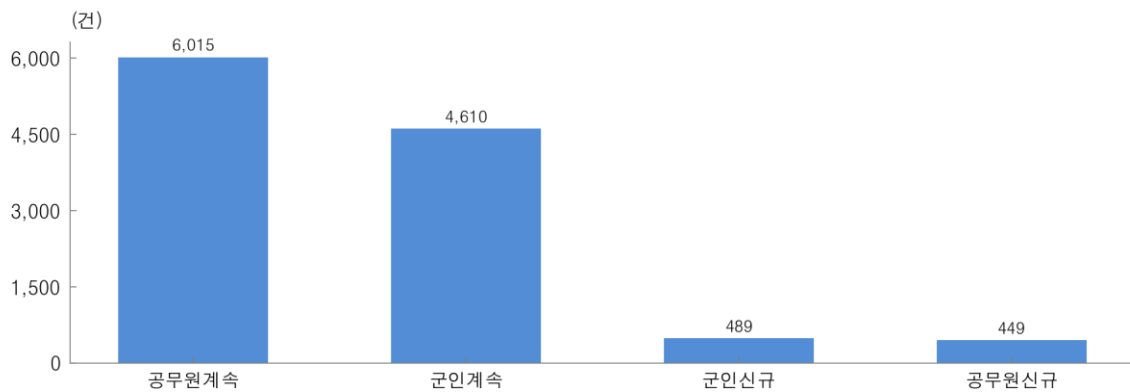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8월 8일 종료 주 계속청구 주(州)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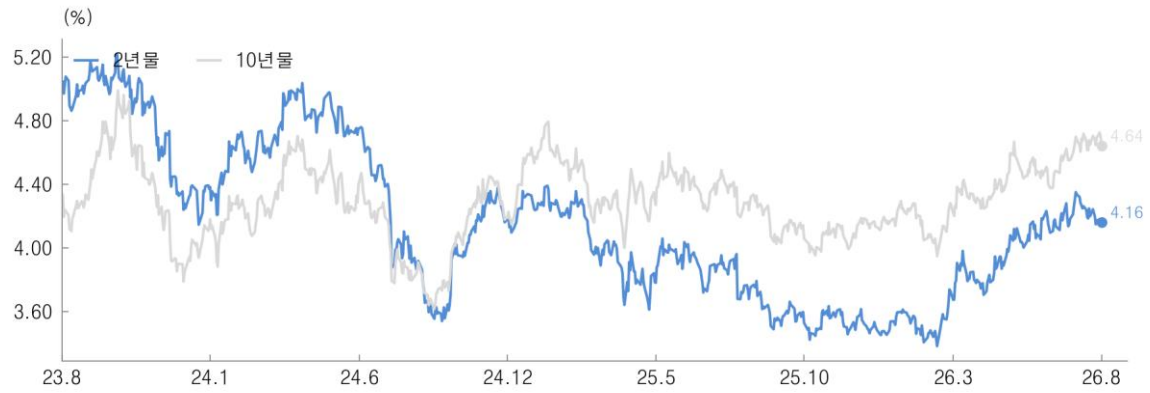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연방 프로그램 신규청구·계속청구 건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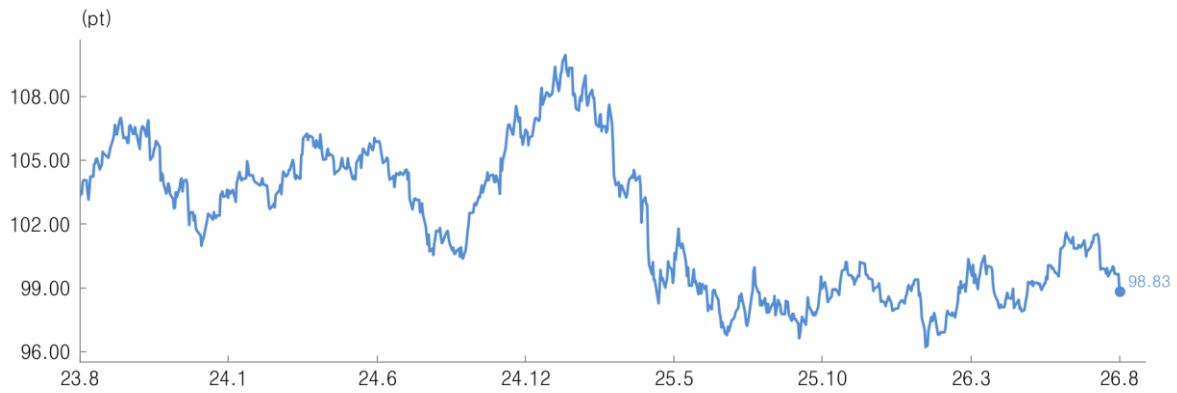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